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 17세기 티베트에 간 신부들의 전설

중세유럽에는 아시아의 오지 카타이에 기독교왕국이 존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13세기 정지스칸의 위엄으로 공포에 떨던 유럽인들은 미지의 기독교 제국의 왕, 프레스터 존이 아시아의 오지에 강력한 기독교 제국을 통치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제왕이 나타나서 동고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여러 탐험대를 아시아의 오지에 파견한다. 13세기 중엽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몽고군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고 조정에 파견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플랑더스 출신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기욤 드 뤼브룩(1220~1293)은 몽고 영내에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카라코람지방의 불교사원을 기독교의 예배 장소라고 보고하면서 "시대가 흐르고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기독교가 쇠락하고 황위를 잃는 풍습으로 변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그것

못하는 인간의 하찮은 운명 따위를 예언하는 것은 초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안드레아는 승려들의 초능력을 직접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골피리,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염주를 손에 든 라마의 모습, 티베트의 승려들이 입고 있는 법의는 고대 그림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12사도와 같은 복장이며 승단의 위계제도, 가톨릭에서도 사용하는 성수와 법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여기는 세상의 끝이다. 이 불모의 오지에서 번영하고 있는 이곳의 종교는 악마들이 교회를 흉내 내어 만들어낸 악마들의 가톨릭인 것이 분명하다. 예수회원은 절대 이 지역에 발을 딛지 않게 되기를 청원한다"고 전술하고 있다. 전술로 가득찬 안드레아의 보고는 1626년 리스본에서 간행되어 카타이, 티베트에 관한 외국인 정보를 유럽에 전달하게 된다. 결국 안드레아는 자신의 교구가 있던 인도의 고아로 돌아가던 도중 독살의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한다. 안드레아 이후 1715년 8월 14일 두 달간 라다크의 레에 체재한 후 티베트의 라사를 향해 출발하는 두 명의 가톨릭 예수회원이 있었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이폴리토 데시데리(1684~1733), 또 한 사람은 인도 델리에서 20여 년간 포교를 계속 포교를 해오던 임마노엘 프레이어(1679~?)였다. 그들이 또 다시 파견된 목적은 안드레아의 보고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지를 확인하고 "이 악마의 가톨릭에 대한 예수회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데시데리는 1716년 라사에 도착하여 1721년까지 6년 동안 티베트어를 익히고 티베트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로마 교황청에 띄워서 그 동안 금지되어있던 티베트에 대한 가톨릭 포교권을 다시 예수회에 돌려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데시데리에 의해서 그동안 황당하고 기괴한 이미지로 채색되었던 티베트불교는 그 전모가 서양에 소개되고 서양의 불교연구는 더욱 전문화되기 시작한다. 놀라운 일은 데시데리 자신이 총카파의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정독하고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교의문답>을 티베트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 경학회 회장

“예수회원은 절대 발을 딛지 말라”

은 긴 오해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3백여년 후 다시 티베트로 향하는 두 명의 가톨릭 신부가 있었다. 그 한 사람은 안토니오 드 안드레아(1580~1634)였다. 당시 인도의 무갈제국에 포교를 위해 파견되었던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원 안드레아는 동료였던 마누엘 마르쿠스와 함께 1624년 겐지스강의 수원지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끝에 히말라야의 협곡을 지나 티베트에 도착한다. 이들의 목표 역시 중세 기독교도들의 왕국을 히말라야의 오지에서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드레아는 서부 티베트에 머물면서 직접 티베트의 종교, 풍습을 견문한다. 당시 티베트 승려들은 엄격으로 먼 곳의 물건을 순간 이동시키고 공중부양, 전생기억, 미지의 대화 등을 나누는 초능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그렇게 엄청난 금과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빈한 수도생활을 하며 길이를 알 수 없는 교리를 수십 년에 걸쳐서 공부하고 날마다 고행을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그곳에서는 채 백년도 살지

오늘날 출-재가 합한 사부대중

잡물자의 길 교단의 구성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베나레스 근교의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수행자와 재화하여 첫 법문을 설하고, 그들을 제자로 맞았다. 바로 불교의 최초 승가(僧伽)가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동일한 교의(敎義)를 기반으로 구성된 공동의 집단을 교단이라 한다. 불교의 교단을 승가(僧伽)라고 하는데, 승가로 음사되는 상가(sangha)는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집단·회합(會舍)이라는 뜻의 가나(gana)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승가는 원래 상공업자의 조합이나 공화제를 취한 부족 국가 등의 정치단체에 적용되는 말이었지만 기원전 3세기의 아쇼카 왕 시대에는 오로지 불교교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초기의 승가는 한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사문의 집단으로 마을을 떠나 조용한 삼림, 동굴, 나무 아래서 수행하였는데,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

행자가 증가하고, 수행에 부적합한 우기를 지내는 방법 등이 대두되면서 한 곳에 정착하며 처음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지도론>에 “승가란 중(衆)이라 함은 여러 명의 비구가 한 곳에서 화합하는 것을 승가라 한다. 비유컨대 큰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숲이라 하지만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나무는 숲이라 하지 않으며, 그 개별적인 나무를 제외하고는 숲 또한 없는 것과 같다. 이와같이 하나 하나의 비구를 승(僧)이라 하지 않지만 하나 하나의 비구를 제외하고는 승 또한 없는 것이니 여러 비구들이 화합하여 승(僧)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고 설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승가를 지칭할 때 화합중이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승가란 출가수행자의 집단만을 가리키지만 재가신자와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원할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나무 아래서 수행하였는데, 대승(佛敎大衆)이라 한다.

남성 출가자는 비구(比丘), 여성 출가자는 비구니(比丘尼)라 하며, 남성재가자는 우바세(優婆塞), 여성 재가자는 우바이(優婆夷)라고 하여 이 네 종류의 대중을 합하여 4부대중(四部大衆) 또는 4중(四衆)이라 한다. 이 4부대중이 오늘날 교단을 이끌어 가는 실제적 중심이



오늘날의 교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4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서 그것을 지키면서 출가자의 시중을 들고 보시에 통해 경제적으로 출가자를 돕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다. 비구 비구니는 원래 연령제한이 있어 20세 이상만 입단을 허가하였는데 그 입단 허가의 의식을 구족계(具足戒) 또는 수계(受戒)라 하였다. 20세 이하인 사람이 입단하는 경우는 출가자의 시중을 받고, 10세를 주고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라 한다. 이 가운데 사미니는 18세가 되면 정학녀(正學女, 식차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

20세에 이르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된다. 비구, 비구니, 정학녀, 사미, 사미니를 출가의 5중(五衆)이라 하고, 여기에 우바세와 우바이를 더해서 7중(七衆)이라 한다. 비구의 승가와 비구니의 승가는 엄연하게 구별되고, 각각의 독립적 자치조직이다. 이 둘을 합해서 양(兩)승가라 부른다. 승가의 형태는 실제로 시대에 따라 크게 변했지만, 불교의 전승가이자 신행의 지도자이며, 정법의 계승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법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③

사랑분별은 계속 허상 만들어 낼뿐...

여사인(呂舍人)에 대한 답서(1)

“모든 부처와 조사는 단 한 법(法)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취한다면, 사람은 그르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언설상(言說相)을 떠나 있으며 심연상(心緣相)을 떠나 있으며 문자상(文字相)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상(相)의 떠남을 알 수 있는 자도 다만 여사인일 뿐이며, 매일 자도 다만 여사인일 뿐이며, 매일 매 순간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명칭함에 빠지거나 들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모두 여사인일 뿐입니다. 다만 여사인만이 여러 가지 기이하고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부처 모든 조사와 더불어

어 적멸의 대해탈광명(大解脫光明) 바다 속에서 함께 헤엄치며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선(禪) 공부는 자기의 타고난 본성(本性)을 확인하고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본성은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으며,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다. 주거나 받을 수도 없으며,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 본성은 모양도 크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눈으로 모양과 색을 볼 때 모양과 색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냄새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입으로 음식 맛을 볼 때 그 맛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촉각에 가

로막하지 않으면 본성만 남고, 의식으로 무엇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무언가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본성만 남는다. 즉 지금 온갖 풍작하는 곳과 사려 분별하는 곳과 느끼는 곳과 의욕하는 곳에서 상(相)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행위와 사려 분별과 느낌과 의욕이 모조리 본성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본성이니 선이니 공부니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본성이고 달리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서 이 글을 읽고 이리 저리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 바로 본성이므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본성이며 손 끝에 느껴지는 신문지의 감각이 본성일 뿐이

다. 이처럼 본성은 매 순간 매 순간의 모든 일에서 조금도 숨김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이면서도 도가 아니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면서도 선이 아니고, 본성을 본성이라고 말하면 본성이면서도 본성이 아니다. 그 까닭은 진실로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고 선 아님이 없고 본성 아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사랑 분별을 통하여 허황된 상(相)을 만들고는 그 허상에 애착하고 가로막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사랑 분별도 본성이고 사랑 분별로 만들어내는 허상조차도 모두 본성일 뿐 다른 무엇이 아니다. 어떤 것도 본성을 벗어나

그러나 왜 본성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다니며 번뇌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또 하나의 허상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허상을 극복하고 지금 이대로의 본성을 진실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허상은 사랑 분별에서 생기기므로 사랑 분별을 통해서 계속 허상을 만들어 낼 뿐, 허상을 극복할 수가 없다. 허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쉬어버리는 관문을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허상과 사랑 분별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잡을 것 없는 허공(虛空)을 붙잡는 듯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하고 진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http://www.mindfree.net/



김태완 부스대 강사·철학

Advertisement for 'Mind Tech' (마인드테크) featuring '무시간' (무시간) state experience,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 system, and '坐禪' (坐禪) meditati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ducts.

Advertisement for 'Ilji Sunim's' (일지 스님의) '金檀花' (金檀花) medicine, featuring a portrait of Ilji Sunim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Advertisement for 'Seon-soo-ji-gwan' (선소지관) 1-year course, featuring a portrait of the instructor and details about the course content and schedule.